

전남교육청, 늘어나는 폐교 활용 방안 ‘고심’

폐교 179개 중 76개교 방치
1곳당 500만원 관리비 ‘골치’
주민들 “교육·복지시설 전환”
도교육청 “예산·접근 등 난망”
TF팀 운영…대안 마련 나서

학령인구가 줄면서 늘어나는 폐교 탓에 전남도교육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며 부지나 건물을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등 방안을 꾀했으나 예산이나 주민들의 반발로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9월까지 도내 폐교 839교 가운데 639교를 매각했다. 나머지 중 61교를 수련원이나 관사 등으로 자체 활용하고 있으며 41교는 임대 등 방식으로 대부하고 있다.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도암초 만덕분교장은 지난 1996년 강진군에 매각되면서 전남 인재개발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여수시 화정면 남도리 화양중 남도분교장 부지와 건물 또한 지난 2016년 남도리 새마을회에 넘기면서 야영장으로 쓰이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 폐교가 교육, 관광시설 등으로 재탄생했지만 이제는 지자체나 지역사회 예산마저도 부족해 교육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폐교 시설관리, 수목정

비 등에 연간 1곳당 500만원이 투입되고 있어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남은 폐교를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9월 기준 보유한 폐교는 179개로 이중 76곳이 미활용된 채 방치되고 있다.

지난 5일 방문한 화순군 화순읍 수만리 화순초 수만분교는 수풀로 뒤덮여 있었다. 형태가 다 사라진 계단, 녹슨 동상 등만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화순초 수만분교는 지난 1958년 개교해 851명의 졸업생을 배출 했지만 갈수록 학생이 줄면서 지난 1997년 끝내 화순초등학교로 통폐합됐다.

문을 닫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장기간 방치된 탓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다.

이경례 수만리1구 이장은 “과거 수만리 1~5구 주민들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학교를 조성했다. 폐교 이후 반환을 요청했지만 기부채납됐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민들의 십시일반만든 학교인 만큼 교육청이나 화순군청에 폐교를 공공시설로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며 “중종 외부인이 폐교 부지를 사들여 장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마을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이장들과 함께 여러 차례 민원을 넣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커 지

자체가 아닌 민간에 매각하는 일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 밖에 미활용 폐교 중 일부는 산간벽지나 도서지역에 있어 매각 문의 자체도 전무할 정도다. 접근성이 낮다는 점, 매각하고 10년 동안 계약 용도(교육·문화·복지시설)로만 쓰여야 하는 제약 등도 폐교를 처리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 4월까지 폐교 활용 및 처리 방안을 논의할 TF를 구성해 매각이 아닌 다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남도교육청 재정과 관계자는 “폐교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민 요구에 따라 함부로 매각할 수 없어 지자체에 매각하는 방식을 채택 해왔다”며 “하지만 그마저도 감

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폐교가 늘면서 지자체 예산 역시 부족한 점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부터 폐교 처리 방안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폭설 대비

광주 북구청 건설과 도로관리팀 직원들이 13일 북구 문흥동 제설자재보관소에서 폭설로 인한 이면도로와 골목길 결빙시 사용할 천연제설제를 동행정복지센터 차량에 싣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전남교육청 내년 유·초·특수학교 1차 임용 258명 합격

전남도교육청 2024학년도 교사 임용후보자 1차 시험에 258명이 합격했다.

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유·초·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에 유치원 31명, 초등학교 213명, 특수학교 유치원 8명, 특수학교 초등 6명 등 총 258명이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차 시험 합격자는 2차 시험을 위한 서류를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차 시험은 내년 1월10일~12일 3일동

안 오룡초등학교와 목포용해초등학교에서 펼쳐진다.

2차 시험 첫날은 교직적성 심층면접이 진행되며 둘째날에는 수업실연, 마지막날에는 초등교사 응시생을 대상으로 영어수업실연과 영어면접이 실시된다.

최종합격자는 내년 2월2일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한편 이번 1차 시험에는 초등학교 339명, 유치원·특수학교 487명 등 총 826명이 응시했다.

김혜인 기자

광주·전남교육청, 내년 정시모집 집중 상담주간 운영

시교육청, 18~23일 진학센터
도교육청, 23~30일 상담진행

광주와 전남도교육청이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광주시교육청은 18~23일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광주교육연구정보원 3층) 상담실에서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집중 상담 주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집중상담은 정시모집을 준비하는 고3

재학생을 비롯해 졸업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담은 광주진학부장협의회, 광주진로진학지원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교사 70여 명이 지난 8일 배부된 수능 성적을 토대로 학생 개별 맞춤형 진학 설계·전략 수립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14일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과 수험생·학부모 대상 정시모집 지원 대비 대입 설명회가 열린다.

전남도교육청은 상담 프로그램 ‘드림플

러스’를 이용해 23~30일 정시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이 개발한 ‘드림플러스’는 최근 3년간 입시 결과를 비롯해 대학별 환산 점수, 지난해 합격·불합격 사례 등 정보가 담겨있다. 도교육청은 ‘드림플러스’를 활용해 진학 상담을 실시하고 정시전형 변경사항 등을 안내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정시 지원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혜인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문암(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74
TEL:062)714-3471 FAX:062)714-3472